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

특집 더 높은 꿈을 향하여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옷의 힘

13

CONTENTS

- 03 2020년, 휠체어 테니스에 세계가 열광하는 날
- 07 스페셜올림픽 선수를 지원하는 한국 유니클로
- 08 장애의 유무를 떠나 함께 일하며 성장한다

BIGGER CHALLENGES,
BIGGER DREAMS

더 높은 꿈을 향하여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악전고투한 끝에 겨우겨우 이룰 수도 있고, 몇 번을 도전해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의 '빗장'이 저절로 열려 이제껏 본적도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자신도 깨닫지 못한 새에 꿈을 이루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의 그 꿈이 이루어지면 도전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꿈을 이룬 그 다음의 더 높은 꿈을 향하여 노력하는 3명의 끈기 있는 행보를 소개합니다.

BIGGER CHALLENGES,
BIGGER DREAMS

01

2020년 휠체어 테니스에 세계가 열광하는 날

유니클로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이자
휠체어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구니에다 신고 선수.

그는 올해도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윌블던, US오픈을 제패했다.
압도적인 실력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꿈을 이룬 그 다음의, 그의 '꿈'은 무엇일까?



01 2020년 휠체어 테니스에 세계가 열광하는 날

도쿄 올림픽이 결정된 날 밤 뜨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야구소년이었던 구니에다 신고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으로 인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휠체어 테니스를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6년에는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그것이 구니에다 선수에게는 처음으로 맞선 벽이었다.



지난 시즌은 고전했습니다. 테니스도 컨디션도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젊은 선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꾼다는 것은 항상 큰 위험부담을 동반합니다.

저는 '수비는 세계 최고'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는 수비가 받쳐주기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나쁘면 수비만 하다 끝나는 테니스가 되고 맙니다. 바꾼다면 바로 이 공수 부분이었습니다. 수비에서 어떻게 공격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나가려면 체어 워크(휠체어에서의 훗워크)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는 대시 트레이닝을 철저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닝샷을 치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샷의 정확도와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샷을 치는 순간의 허리와 무릎의 기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코너 구석에 내리꽂는 단조로운 연습도 철저하게 반복했습니다.

초심자가 하는 단조롭고 재미없는 기초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몇만 번이나 반복하다 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라켓을 잡지 않고 7시간 동안 계속 매트 위에서 복근 등의 체간 트레이닝에 집중하는 날도 있고, 사이클링 로드에서 15km 주행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깨와 팔은 휠체어를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단련되지만, 유연함과 관절가동역을 넓히는 트레이닝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메뉴를 모두 소화해온 결과, 올해는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Wimble던, US 오픈의 4대 대회를 전부 우승하고, 30살이 되어서 다시 성장기가 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여야 한다

밀바탕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항상 승자로 있고 싶고, 무조건 세계 최고가 아니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그 마음이 흔들린 것이 2006년에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뒤쫓고 있었던 등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왜 테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1위가 되고 첫 시합에서 깨달은 것이, 넘버 원은 되었지만 내 속에 아직도 더 개선할 수 있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 2012 금메달리스트 테니스웨어

구니에다 선수의 치수를 꼼꼼하게 재서 어깨, 견갑골 돌레의 움직임에 방해하지 않는 패턴을 연구. 격한 움직임에도 박음선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플랫 시머 재봉을 채용했다. 도레이 주식회사와 공동개발한 고품질 흡한속건 소재 'DRY-EX'는 가볍고 얇으며 고온 다습에도 강하다. 빨간색을 베이스로 하고, 악센트로서 가슴에 짙은 빨간색 파이핑을 둘렀다.

01

2020년 휠체어 테니스에 세계가 열광하는 날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척추종양이 생겨 그 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휠체어로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놀 때도 저만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애썼습니다. 그즈음부터 저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병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5년 생존율을 생각해서, 제게 전달할 타이밍을 찾고 계셨던 것이지요.

암이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휠체어쯤이야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갈림길에 제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 있기에 테니스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니클로 부흥 응원 프로젝트’에서 많은 학생과 그 가족을 잃은 이시마키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과 나는 대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활기찬 모습으로 맞이해 준 아이들의 씩씩함을 보고, 제 불안이 단숨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진 힘을 눈앞에서 생생히 본 느낌이었습니다. 쓰나미 피해라는 재앙 속에서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봅니다. 가혹한 경험은 때론 인간을 더



‘유니클로 부흥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가을에 미야기 현 이시마키시를 방문. 이시마키 론 테니스 클럽에서는 테니스 캘리로 교류하고, 가마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많은 질문 세례를 받았다. 지진 피해지 아이들의 환성과 박수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 찾아오지 않는 기회

도쿄 올림픽이 결정되었을 때는 US오픈 결승 전날이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날 밤은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정도로 기뻐했어요.

노리는 것은 물론 금메달입니다. 도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엔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휠체어 테니스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최대의 기회입니다.

휠체어로 테니스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한, 아직 휠체어 테니스의 진정한 매력은 전달되지 않아요. 신문 사회면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합에 지면 두드려 맞는 스포츠 지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제 백그라운드를 쫓기보다, 시합하는 모습을 쫓아 주기를 더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코트로 와 주십시오. 스틸 만점의 플레이를 여러분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휠체어 테니스 시합에서 관객석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 꿈입니다.

02 스페셜올림픽 선수를 지원하는 한국 유니클로

한국 유니클로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후원과 더불어, 선수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2012년부터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면서, 선수들이 사회성 함양을 통해 당당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비와 유니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5월부터는 스포츠 활동 참여와 함께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스페셜올림픽 선수를 장애사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해, 현재 총 3명의 선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매일 6시간씩 열심히 근무하면서, 일이 끝난 후에는 운동 연습도 빼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지난 8월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게대회에서는 3명의 선수가 모두 각자의 종목에서 멋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의 나슬기씨가 농구 종목 1위, 홈플러스 동수원점의 이선민씨가 스케이트 종목 1위, 강남점 박기남씨가 5인축구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일을 하면서 농구팀 동료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점장님과 스태프들이 일을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고 즐겁게 대해주셔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주로 BR작업이라 매장으로 나가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보충한 상품을 매장에 진열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사갈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것 같아요. 내가 고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나슬기)

“직장인처럼 평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에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어서 힘들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1위를 했지만, 절대 만족하지 않고 다음 대회 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습할 거예요.” (강남점 박기남)

앞으로도 유니클로는 더 높은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3명의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전체 장애사원 83명중 스페셜올림픽 선수 3명을 채용하여 선수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점장 김예슬(좌),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나슬기선수(중간), 한국유니클로 장애인채용 담당 장준혁(우)

BIGGER CHALLENGES,
BIGGER DREAMS

03 장애의 유무를 떠나 함께 일하며 성장한다

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다양한 사람이 함께 일하는 직장은 당연한 풍경.
유니클로의 장애인 고용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니클로에서 장애인 고용을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일본의 장애인 고용률은 최고 수준인 6.36%.

한편 해외 사업 전체로 보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지만, 각 지역 담당자와 연계하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이 활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으로서의 고용률, 종업원 5,000명 이상 구분에서의 순위 (패스트 리테일링 조사)



유럽 각국의 가치관을 배려하며 추진

유럽에서는 작년보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유럽이라도 법률이나 가치관이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어, 일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에는 벌금을 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지만, 법률 강화 영향도 보태어져 사회 전체로서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영국 법률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자리매김부터가 다릅니다.

프랑스 유니클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침투시키기 위해 매니저 연수와 점포에서의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함께 일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후천성

장애도 있으므로, 장애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장애에 관해서도 스스로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몇 번이나 보아 왔습니다.

장애인 고용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일함으로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캐롤 페티에
유니클로 프랑스
인사부
CSR 프로젝트
매니저



엠리느 듀플
유니클로 프랑스 르발루아 페레 소웨스트 점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파리 교외 점포에서 일하는 엠리느 씨
넘치는 호기심과 행동력으로 꿈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 문화나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치관, 상냥한 미소를 동경했습니다. 특히 패션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유연하게 더해가는 부분에 매력을 느낍니다. 유니클로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 생긴 계기도, 이러한 점 때문이었지요. 장애인을 위한 모집은 아니었지만, 개이치 않고 응모했습니다. 전에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을 때부터 꼭接客 업무를 해보고 싶었고, 제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유니클로에 관해 알아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저는 백색증이라는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보통 밝기라도 너무 눈부시게 느껴져 시야가 새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심한 근시라서 안경을 써도 증상은 그다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태그 등 작은 글씨를 읽는 작업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 장애는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걸로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난처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주변 스태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계산대 업무입니다. 계산대 화면이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들과 돈을 다룬다는 긴장감으로 당황한 적도 있었지만, 스태프들의 뒷받침과 격려 덕분에 다행히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점포는 모두 사이가 좋고,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장애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없이 얘기합니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음으로써, 지금은 장애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일은 피팅룸에서의 업무입니다. 고객의 환한 얼굴을 보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어요. 고객의 '고맙다'는 한마디가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되지요.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 하나하나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 이제까지 동료들이 뒷받침해 준 것의 두배로, 저도 점포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개성과 직업 등에 어울리는 복장이나 차림새 등을 어드바이스하는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창업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패션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니까요. 유니클로에서는 다양한 고객이 점포를 찾아주시므로 장애의 꿈을 위해서도 일을 통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실은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매달 조금씩 저금도 하고 있어요. 몇 주 동안 도쿄와 교토를 돌며 진짜 일본을 체험해 보고 싶어요.



트픽 벤제나티
유니클로 프랑스 르발루아 페레 소웨스트점 점장

장애가 있는 스태프가 입사하면,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거나 당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동료로서 함께 일하다 보면 자신과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서로 이해하고자 생방이 다가서므로 점포 스태프 전원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아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엠리느의 경우에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스스로 없이 상의해 주므로 금방 모두와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 때문에 배려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점포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클로는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인 니시코리 케이 선수, 구니에다 신고 선수, 노박 조코비치 선수와 더불어, 국제 테니스 연맹(ITF) 주최의 휠체어 테니스 투어를 타이틀 스폰서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LifeWear